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본 유교사상의 평가 문제

김화종*

【국문초록】

유교사상은 과거 동양의 특유한 봉건통치 리념으로서 종교적 성격을 띤 정치윤리 사상이다. 유교사상은 중국에서 2500여 년 전에 공자에 의해 발생하여 한 때 아시아 나라들에 널리 전파되어 사회정치생활과 세태풍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오늘날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실생활의 여러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는 매우 이른 시기에 들어와 봉건지배계급의 통치사상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우리는 새 사회건설에 착수하여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던 초기부터 그 결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유교의 봉건적 굴종사상을 극복하고 인민들 속에 나라의 주인 된 자각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 유교사상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지침으로 하여 이 사상의 본질을 분석평가 하였는데 대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교는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품성인 효성, 인, 의, 예, 지, 충 등 일련의 도덕관념을 이용하여 인민대중 속에 봉건군주에 대한 복종의식을 주입하였다는 폐해가 있다.

둘째, 유교는 정명사상으로써 봉건위계적 신분제도를 합리화하고 예덕통치로써 봉건사회의 영원성을 추구하였다.

셋째, 유교는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봉건적 신분제도와 반인민적 통치질서를 '천 명'에 기원을 둔 것으로 신비화하는 종교적 색채를 띤 봉건통치사상이다.

우리는 유교사상의 본질에 대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적 평가에 기초하여 그 사상

* 사회과학원 김일성주의연구소 박사

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인민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 된 자각을 가진 강성대국건설의 어엿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갈 것이다.

부연하자면, 유교사상 그 자체는 봉건통치사상이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사상을 만드는 데서 인간 본연의 도덕관념이 적지 않게 이용되었고 이러한 전통적 인 도덕관념은 오랜 역사를 두고 민족정신에 깊이 뿌리박은 것으로서 강한 생활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주제어 유교사상, 주체사상, 주체적 방법론, 봉건정치사상

오늘 유교사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유교사상은 과거 동양의 특유한 봉건통치리념으로서 종교적 성격을 띤 정치倫리사상입니다. 유교사상은 중국에서 2500여 년 전에 공자에 의해 발생하여 한 때 아시아나라들에 널리 전파되어 사회정치생활과 세태풍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오늘날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실생활의 여러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교는 매우 이른 시기에 들어와 이미 4~6세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국가적인 학문으로 공인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말~리조 초에 유교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어 불교를 압도하였으며 그 후 500년간에는 유교성리학이 봉건지배계급의 통치사상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유교는 이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봉건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회건설에 착수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던 초기부터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

며 그리하여 유교의 봉건적굴종사상을 극복하고 인민들 속에 나라의 주인 된 자각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봉건적이며 낡고 뒤떨어진 유교사상 잔재와 생활인습을 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유교사상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대하여 우리는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지침으로 하여 이 사상의 본질을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사상문화유산을 평가하는 주체의 방법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중심의 방법론, 인민대중중심의 방법론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주인 된 지위와 역할을 밝힌 이 원리에서 사람이라 할 때 그것은 자주적 요구를 내세우고 창조적 활동으로 그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 사회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입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방법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 활동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사상문화유산, 사회력을 발전시키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역사창조 활동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사상을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진보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적 유산 가운데서 현실적의의가 있고 오늘날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에 맞는 것은 계승 발전시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꽂피우는데 리용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하는 봉건제도와 같은 반인민적통치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유지에 복무하던 사상문화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러한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합니

다. 레컨대 인민대중을 억압하던 봉건관료체제의 유물인 관료주의에 대하여 우리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독약으로 보고 그 사소한 표현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것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방법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날의 유산을 대하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유교를 옳게 평가하는데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주체적방법론의 참다운 귀감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난날 유교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품성인 효성을 봉건적인 군주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사상적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조건적이며 맹목적인 복종을 설교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사회생활분야에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봉건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효성은 인민대중의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도덕 품성이며 유교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지니고 살아온 인간본연의 도덕적 기초입니다. 효성 그 자체가 나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유교가 효성이라는 건전한 도덕관념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조건적이며 맹목적인 복종의 관념으로 변모시키고 이러한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사회정치생활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봉건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한데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을 비롯한 인, 의, 레, 지, 충 등 일련의 도덕관념을 리용하여 인민 대중 속에 봉건군주에 대한 복종의식을 주입하였다는데 지난날 유교의 첫째가는 폐해가 있습니다.

유교는 둘째로 ‘정명’사상으로써 봉건위계적 신분제도를 합리화하고 ‘례덕’ 통치로써 봉건사회의 영원성을 추구한 사상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의 ‘정명’사상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처신하며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민대중이 아들, 손자대를 이어가며 노비 등의 천한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위계적신분제를 영원히 고착시키려는 지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교가 제창된 ‘례덕’ 통치사상도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적 지배를 실시하려는 사상입니다.

공자는 『론어』 위정편에서 “행정명령과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조용해 져 무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도덕으로써 이끌고례로써 다스리면 참다운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명령과 형벌만으로써는 봉건 통치에 반항하는 인민대중의 진출을 막을 수 없으며 덕과례로써 그들을 ‘교화’하는 정책을 배합함으로써만 봉건통치제도를 원만히 운영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인간본연의 도덕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며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는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다는 덕인지재용의 리치만보아도 그것은 현대생활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덕을 봉건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선협적인 도덕관념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관념을 이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흐리게 함으로써 봉건통치를 영원히 보존하려는 유교사상은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한 사회발전에 제동을 거는 사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날 이른바 ‘유교문화권’이라고 불리던 아시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반인민적인 봉건사회제도가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사회발전에 커다란 지장

을 초래한 것도 한편으로는 유교사상의 폐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사상은 셋째로,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봉건적신분제도와 반인민적 통치 질서를 ‘천명’에 기원을 둔 것으로 신비화하는 종교적 색채를 띤 봉건통치사상입니다.

유교는 천을 인격신으로 간주해온 그 이전의 종교 관념을 인정하면서 천명에 의하여 사람의 삶과 죽음, 신분의 귀천이 미리 결정되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 변화가 주재된다는 사상을 제창하였습니다.

유교의 이러한 천명사상은 그 후 맹자와 동종서를 거쳐 더욱 신비화되면서 봉건군주를 천의 아들로 묘사하고 ‘군권신수설’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일정하게 고정된 종교의식까지 갖춘 종교로 변모되는 유교의 갈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교에서 초월신 관념은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에는 그리스도교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처럼 신이 옛새 동안 세상만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묘사한 서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교의 천은 철학적, 윤리적 의미를 가진 리법적이고 규범적인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천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인 것만큼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볼 때 천명사상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교사상의 본질에 대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적 평가에 기초하여 그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 된 자각을 가진 강성대국건설의 어엿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한 가지 문제를 부언하려고 합니다.

유교의 발생국인 중국의 학자들이 서양문명을 중국에 도입하는 데서 함께 침습한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와 물질지상주의, 패륜패덕의 퇴폐 풍조를 극복하는 사업에 전통유교사상에 들어있는 일부 유산들은 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유교사상 그 자체는 봉건통치사상이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사상을 만드는데서 인간본연의 도덕관념이 적지 않게 리용되었습니다. 효성과 같은 도덕관념의 관념론적, 신비주의적 왜곡을 바로잡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던 외래 퇴폐 풍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도덕관념은 오랜 혁사를 두고 민족정신에 깊이 뿌리박은 것으로서 강한 생활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Abstract

**Valuation issue of Confucian ideas
from the viewpoint of subjective thought**

Kim, Hwa-Jong

Confucian ideas is thoughts of political ethics which has political character as particular feudalistic ideology of past orient. Confucian ideas originated from China about 2500 years ago by Gong Ja. Also it propagated widely in the continent of Asia in those days, so left deep vestige in social political life and public morals and has a big influence on real life despite differences of each nation.

Korea accepted Confucianism very early as well, and occupied a first position as a ruling system of the feudal ruling class. Therefore we analyzed essence of Confucian ideas in order to have a right viewpoint about it.

Key Word

Confucian ideas, subjective thought, a feudalistic idea